

동경대학 대학원 인문사회계연구과  
차세대 인문사회학 육성프로그램에 의한 해외파견 귀국보고

최종보고서 제출한 날짜  
2012년 9월 30일

**파견생의 기본정보**

이름 : 나카오 미치코 Nakao Michiko  
소속 : 한국조선문화연구전공 한국조선역사사회분야 박사과정  
파견 형태 : 2010년도 여름 개인파견 · 대학원생

**연구 주제**

인물화를 중심으로 한 조선시대 회화작품 조사 및 관련 문헌자료 수집

**현지에서의 활동**

(1) 현지의 기본정보

대한민국, 서울, 서울대학교박물관

(2) 체재기간

2010년 9월 7일 출발, 2010년10월 6일 귀국, 체재기간 30일.

**주요 연구성과**

(1) 연구계획의 개요

18세기는 한국회화사상 인물화가 가장 활발하게 제작 된 시기의 하나이며, 그 중에는 여러 사람의 집합적인 구성을 표현한 것도 포함된다. 이 연구는 그러한 조선시대의 이른바 군상표현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한 것이다. 군상표현에는 초상화, 풍속화, 고사인물화, 도석인물화 등 한국회화사 연구의 전통적인 인물화의 각 장르의 틀을 넘어 다양한 용례의 형상과 내용을 보여준다. 이번 파견의 목적은 연구 대상 작품을 해석하기 전단계의 작업으로 작품의 기본 데이터를 확인하고 작품에 직접 관련된 문헌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서울대학교박물관에 거점을두고, 진준현 교수님에게 지도를 받으면서 국립중앙박물관, 삼성미술관 Leeum 등에서 회화작품 조사와 현지 연구원과 평소 작품을 다루고 있는 박물관 큐레이터에게 작품에 대한 최신 정보의 수집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2) 실제로 달성된 성과

1. 서울대학교박물관 작품조사

주요 조사 대상인 도석인물화의 〈군선도群仙圖〉와 〈신선도神仙圖〉 등을 소장하고 있는 서울대학교박물관에서 작품의 실견 및 사진 촬영을 할 수 있었다. 또한 박물관 학예연구관의 진준현 교수의 교시에 따라 본 연구에 관한 새로운 작품의 소재 정보를 파악했다. 또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관련 문헌사료의 마이크로 필름을 검색하여 필요한 사본을 입수했다.

## 2. 삼성 미술관 Leeum 작품조사

이 연구 전체와 관련된 주요 작품이면서, 지금까지 실견의 기회를 얻을 수 없었던 삼성 미술관 Leeum(이하, Leeum) 소장의 김홍도 <군선도병풍群仙圖屏風> (한국·국보139호)을 조사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연구의 주대상인 김홍도 (1745~1806 이후)와 후원자 및 수장가들과의 관계를 밝히는 《병진년화첩丙辰年畵帖》, 화면이 손상되어 2007 년부터 2009 년까지 수복에 들어 있었던 정조 (재위 1777~1800)와 김홍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삼공불환도三公不換圖> (1801년작), 지금까지 개인소장이었던 것을 Leeum이 지난해 구입 한 <포의풍류도布衣風流圖> 등 Leeum 소장의 김홍도 작품을 실견 조사 할 수 있었다. 또한 Leeum의 학예원 조지운 씨에게서 작품에 관한 귀중한 정보 및 이미지 데이터를 받았다.

## 3. 국립중앙박물관 작품 조사

이 연구와 관련된 작품 중 이인문 <누각아집도樓閣雅集圖>, 전 김홍도 <해상군선도병풍海上群仙圖屏風> 등 이전에 조사하지 못했던 작품을 중심으로 총 10건 33점의 열람 및 사진촬영을 실시했다.

이 밖에 파견 중에 덕성여자대학교 박은순 교수님의 교시에 따라 김홍도 이후 군선도 이미지의 계보 추적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작품으로 19세기 말에 제작 된 안중식·조석진 <해상군선도海上群仙圖> (1892년작, 한양대학교박물관소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이상으로, 이 연구에 필수 회화 작품의 조사 및 작품에 관련한 문헌자료, 사진 데이터 수집을 할 수 있으며, 박사논문에 필요한 데이터 대부분을 갖출 수 있었다. 또한, 현지 연구자와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작품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의 연구 방향을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었다는 점은 이번 파견의 큰 성과이다.

### (3) 향후 연구 전망

이번 조사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선 철저한 작품 분석을 실시한다. 이 기초 작업을 어느 정도 진행한 후 자신의 지금까지의 연구를 보완하면서, 한국회화의 인물 표현과 그 변용을 둘러싼 문제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진행시켜 나갈 예정이다. 목표는 조선시대 회화에서 인물이 어떻게 그려지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가, 그리고 어떤 기능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표현의 문제와 회화의 제작자와 그려진 사람들, 또한 그것을 누린 사람들과의 관계, 그것을 포함한 회화의 감상 형태의 변화 등 사회 문제를 연결시켜 재해석하는 것이다. 한국 국내에서 조선시대 회화 연구의 축적이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외국인 연구자로서 그들의 연구를 소화하면서 그 특성을 검증하고 고찰을 거듭하는 것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동아시아회화사 연구 속의 한국회화의 자리매김에 약간의 지견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